

# 연휴 호남서 '명낙대전'...민주 텃밭서 표심 잡기 경쟁

이재명, 1박 2일 목포·여수 등 방문  
김홍걸 "이재명, 아버지 꿈 현실로"  
이낙연, 광주 동구 봉곡 유족 만남  
전북 고창 노을대교 현장 찾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왼쪽) 경기지사가 지난 14일 전남 목포시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의 생가를 방문해 김 전 대통령 아들인 김홍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전남 목포시 영산로 유달산 우체국 옆 국도 1.2호선 기점 기념비를 찾아 목포시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낙연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광복절 연휴 기간 경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표심 쟁탈을 놓고 맞붙었다.

이재명 지사는 주말과 휴일(14-15일) 1박 2일간 전남에 머무르면서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보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 전남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비롯해 광주와 고창을 잇따라 방문하고 평화대통령, 화합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지사는 주말인 지난 14일 오후 전남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목포 신항만을 찾아 민선 7기 전남도가 추진 중인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해 해상풍력 지원부담 및 배후단지 추진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신안 하의도를 찾았다. 김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2009년 8월 18일 서거)를 앞두고 이뤄진 하의도행에는 김 전 대통령 삼남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동행했다.

이 지사는 김 전 대통령 생가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정말로 많은 신고를 겪으셨고 그것이 또 거름이 돼서 평화적 정권교체, 수평적 정권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위업을 이뤄냈다"며 "(김 대통령께서) 온몸을 던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해내고 새로운 개혁의 길을, 또 남북평화의 길을 열어낸 그 위대한 여정을 존경하고 그 길을 따라 저도 멈춤 없이 앞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단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이 지사가 나서면, 저희 아버님이 뒀다 이런 한반도 평화의 꿈을 이번에는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상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튿날인 15일 이 지사는 전남지역 최대 인구밀집지 여수-순천을 찾아 국도 균형 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보상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여순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보상 또는 예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표심에 다가갔다.

이낙연 전 대표도 연휴 기간 호남 지지세 확산에 공을 들였다. 이 전 대표는 연휴 기간 전남과 광주, 전북을 누볐다. 지난 14일 광주에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완벽한 진상의 규명, 남김 없는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최대한의 복구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불행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며 "여러분이 겪은 고통을 누구도 다시는 겪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 이후 전북으로 이동, 자신이 국무총리 시절 사업 계획을 확정 지었던 고창 노을대교 현장을 찾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북 부안과 고창을 잇는 해상교량으로 전북의 오랜 꿈이자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국내 최장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이라고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은 65km를 돌려면 80분이 걸리지만, 7.5km의 다리를 놓으면 10분에 건널 수 있다. "며 "이달 말로 예정된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돼 확정 고시돼야 한다.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13일 13일 국도 1.2호선이 출발하는 목포를 찾아 "국도1호선은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완성할 대한민국의 길이며, 국도 2호선은 동서를 연결하는 국민소통의 길이다"면서 "평화대통령과 화합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기형호 기자 khh@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이재명 25.6%·윤석열 18.1%·이낙연 11%

한국리서치 조사...광주·전라권 이재명 36.3%·이낙연 24.2%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25.6%, 윤 전 총장이 18.1%, 이낙연 전 대표가 11.0%로 각각 집계됐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격차는 7.5%포인트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밖이다.

지역별 조사 가운데 광주·전라지역에선 이 지사가 36.3%로 선두를 달렸고, 이낙연 전 대표가 24.2%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어 심상정

(3.9%), 추미애(3.8%), 정세균(2.9%)순이었다. 윤석열은 2.8%의 지지율에 그쳤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 지사가 44.2%로 윤 전 총장(36.9%)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전 대표와 윤 전 총장의 양자 대결에선 두 후보 모두 39.7%로 동률을 기록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 지사가 34.2%로, 이 전 대표(20.5%)에 우위를 보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는 윤 전 총장이 23.7%로 가장 우세했고, 홍 의원이 14.0%, 유 전 의원이 10.7%로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이재명, 성평등 공약 여심잡기...이낙연, 노동계·2030 공략

"산후조리 격차 해소 부담 덜겠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도 보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여성과 공무원 노조를 겨냥한 공약을 각각 쏟아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해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의 낙인도 지우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캠프 사무실에서 '성평등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전국화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 지사는 "청소년 월경부다 산후조리까지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며 "양질의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으

로 확대 시행해 산후조리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점진적으로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을 높여 아빠도 육아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젠더 폭력'에 대한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에 확대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지혜를 짜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는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정치적 기본권 및 노동3권 보장 요구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도 아직 애매하게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투표권(부여 연령)도 18세로 내려 학생들도 투표권과 정치적 자유를 갖는데 어른들은 못갖고 있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가까운 시일 내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노동기본권(보장)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역사의 흐름 자체가 그런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시기와 범위이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며 "기왕이면 빨리, 정점이 안되도록 해소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후 청년 100명과 함께 정책 토론회 '청백낙연'을 열어 청년 정책을 논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석열 반등 30.6%...이재명 하락 26.2%

KSOI 조사...이낙연 12.9%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에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묻은 결과, 윤 전 총장은 30.6%로, 이 지사(26.2%)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지난주 조사 대비 윤 전 총장은 2.3%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 지사는 2.2%포인트 하락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4.4%포인트다. 지난주에는 윤 전 총장이 28.3%로, 이 지사

(28.4%)보다 0.1%포인트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2.9%로 3위를 이어갔다. 이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7.3%),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4.0%),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3.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4%), 정세균 전 국무총리(1.8%),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1.6%)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6%로, 민주당(31.4%)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2%, 부정평가는 58.0%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